

##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

- 6.1.(토) 00:00~24:00, 6.6.(목) 00:00~24:00는 '주의' 단계 적용
- 6.2.(일) 00:00 ~ 6.5.(수) 24:00는 '경계' 단계로 상향 적용

- 정부는 5.31.(금)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'테러대책 실무위원회'를 개최하여, 6.1.(토)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조정한다.
    - 이는 6.4.(화)부터 개최되는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,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    -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6.1.(토) 0시부터 테러경보를 '관심'에서 '주의'로 격상하고, 정상회의가 임박한 6.2.(일) 0시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6.5.(수) 24시까지 '경계'로 추가 격상한다.
- ※ '테러경보'는 테러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의 4단계로 구분
-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 이한형 (02-2100-2032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진 (02-2100-2044)